기술 2026-074 2026.07.16.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일진파워(09482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파워(094820)

발전정비 안정성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종합 에너지 인프라 기업

기업정보(2026.07.08 기준)

대표자	이광섭
설립일자	1990년 2월 7일
상장일자	2007년 11월 6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주요제품	발전소 경상정비, 보수유지, 플랜트 핵심설비 기자재 등

시세정보(2026.07.08 기준)

현재가(원)	10,9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647
발행주식수	15,078,709주
52주 최고가(원)	24,500
52주 최저가(원)	8,970
외국인지분율	4.26%
주요주주	이광섭 외 5인

■ 발전설비 정비를 핵심 수익원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중

일진파워(이하, 동사)는 발전소 경상정비 · 계획예방정비가 핵심 수익원이고, 동사의 사업은 발전회사와 공공 · 민간 발전소, 원자력 관련 기관, 정유 ·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자 대상의 기술 기반 수주형 영업 구조이며, 현장 정비 경험, 인증 기반 제작 역량,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화력 · 복합 발전소 정비 기반을 유지하면서 원자력, 수력, 소방시설,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EPC 및 O&M까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전력수급 안정성 기반의 반복 정비 수요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부가 정비 기회 공존

목표시장은 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각종 정비, 개보수 및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하는 설비 유지관리 시장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설비 가동률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이며, 발전소 운전 기간, 정기 검사 주기, 노후 설비 수명연장, 피크 전력수요 대응에 따라 반복 수요가 발생한다. 시장은 대형 전문기업 중심의 장기 정비계약과 민간 정비업체의 경쟁입찰이 병존하고, 기술 이해도, 현장 정비 인력, 안전 · 품질관리, 발주처 수행 이력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발전정비 기반에 원자력·연료전지·신재생 O&M으로 성장축 확장 중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와 화공 · 플랜트 기자재 중심의 사업 기반을 유지하며 연료전지, 신성장사업, 신재생 O&M 및 발전자산 운영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 열병합, 집단에너지, 신재생 발전설비 운영 · 유지관리,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 발전소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O&M, 에너지 투자사업 등이 사업목적에 추가되면서 에너지 설비 서비스와 운영형 사업으로의 확장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금배당을 통한 주주환원도 실행되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908.3	-2.6	131.2	6.9	95.8	5.0	7.5	5.0	47.7	635	8,668	18.2	1.3
2024	1,930.9	1.2	102.7	5.3	98.9	5.1	7.9	4.3	97.2	692	8,861	11.5	0.9
2025	2,519.8	30.5	241.2	9.6	195.5	7.8	13.4	6.5	117.6	1,231	9,773	10.3	1.3

일진파워(094820)

기업경쟁력	
발전설비 정비 기반의 안정적 사업 구조	• 화력·복합발전소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개보수 공사를 수행하며 전력수급 안정성과 설비 가동률 유지에 필요한 반복 수요 확보
원자력·플랜트·수소 분야로 확장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	• 발전정비를 기반으로 원자력 설비, 화공·플랜트 기자재, 연료전지 발전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응하는 구조 보유
인증·설비·현장 경험이 결합된 수행 역량	• ASME, KEPIC, ISO 등 인증과 대형 제작·검사 설비, 다수 발전소 현장 운영 경험은 정비·제작·시공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발전설비 정비 및 성능개선 기술	• 보일러, 터빈, 고온·고압 밸브, 급수펌프, 탈황설비 등에 적용되며, 발전소의 예방정비, 돌발정비, 개보수 및 가동 안정성 확보에 활용
대형 플랜트 기자재 설계·제작 기술	•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컬럼·타워 등 고압·고온 장치류에 적용되며, 정유·석유화학·가스·발전 플랜트 프로젝트 대응에 활용
원자력·수소 등 에너지 설비 대응 기술	• 원자력 및 파일럿 설비, 원전 관련 기자재, 연료전지 및 수소 관련 압력용기·패키지 설비 등에 적용되어 에너지 전환 분야로의 확장 기반 형성

시장경쟁력	
전력수요 증가에 연동되는 발전정비 수요 기반	•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전기화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는 발전설비 안정 운전과 정기 정비 수요를 뒷받침
무탄소전원 확대에 따른 원자력·신재생 O&M 기회	• 원전 계속운전, SMR, 수력, 신재생 및 연료전지 확대는 기존 화력 중심 정비에서 고신뢰·친환경 에너지 설비 정비 분야로 시장 기회 확장 가능
플랜트 투자 사이클 회복 시 활용 가능한 제작 경쟁력	• 특수소재, 고압·후육 장치, 대형 열교환기 제작 경험은 정유·석유화학·수소·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시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 가능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발전설비 정비, 원자력 설비, 플랜트 기자재 제작 및 연료전지 사업 역량은 전력수급 안정, 노후 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높다.

희소성(Rarity)

• 다수 발전소 현장 정비 경험과 ASME·KEPIC·ISO 등 인증 기반, 대형 열교환기·압력용기 제작 역량을 함께 보유한 기업은 제한적이어서 일정 수준의 희소성이 인정된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발전정비 수행 이력, 원자력 품질 대응, 특수소재·고압 장치 제작 경험, 현장 인력 운영 노하우는 단기간에 축적하기 어려워 모방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조직(Organization)

• 다양한 사업부문 체계를 갖추고, 현장 조직, 제작 인프라, 품질·안전 인증을 통해 보유 기술을 실제 수주·제작·운영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진파워(094820)

I. 기업 현황

발전설비 정비를 핵심 수익원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중

동사는 200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발전소 경상정비·계획예방정비가 핵심 수익원이며, 원자력·전기공사, 화공·플랜트 기자재 제작,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은 발전회사와 공공·민간 발전소, 원자력 관련 기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기반 수주형 영업 구조이며, 현장 정비 경험, 인증 기반 제작 역량,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발전정비 사업은 전원 믹스 변화와 발주처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사는 기존 화력·복합 발전소 정비 사업 기반으로 원자력, 수력, 소방시설,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발전사업의 개발, EPC 및 O&M까지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0년 설립된 발전설비 및 산업플랜트 설비 정비 · 제조 전문기업으로, 200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2014년 1월 물적분할을 통해 화공 및 플랜트 기자재 사업을 일진에너지로 분리한 이후, 지배회사 기준으로 발전설비 정비와 원자력 · 전기공사, 신성장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 기준으로는 화공 · 플랜트 기자재 제작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까지 포괄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모델은 발전소 및 산업설비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설비개선 공사를 수주해 수행하는 프로젝트 · 용역형 매출 구조와, 종속회사를 통한 열교환기 · 압력용기 · 반응기 · 타워 등 플랜트 핵심 기자재 제작 매출 구조로 구분된다.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 기준 발전사업본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공사업본부, 연료전지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원자력사업본부가 뒤를 잇는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발전소 터빈 · 보일러 · 탈황설비 · 전기설비 등의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원자력 발전소 정비와 원자력 기자재 공급,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용 열교환기 · 압력용기 · 반응기 제작, 플랜트 배관 · 철골 · 회전기계 설치공사,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동사는 울산 본사 및 공장, 기술연구소, 국내 주요 발전소 사업소를 기반으로 정비 인력과 제작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회사, 원자력 관련 기관, 정유 ·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자,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를 주요 고객군으로 확보하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발전소 현장 상주 정비 경험, 터빈 · 보일러 · 전기 · 환경 설비를 포괄하는 정비 범위, 원자력 및 화공 플랜트 기자재 제작 인증 기반, 에너지 전환 관련 신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이다. 다만 발전설비 정비사업은 발전회사 발주 구조와 전원 믹스 변화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동사는 기존 화력 · 복합 발전소 정비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원자력, 수력, 소방시설, 연료전지 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성장 축을 확장하고, 발전사업의 개발 · 투자부터 EPC 및 O&M(Operations & Maintenance)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90.02	법인 설립
1992.08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설비 및 철물면허)
1998.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11	코스닥시장 상장
2008.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갱신,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2008.11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태양,풍력,지열에너지(3종)
2011.05	미국기계학회(ASME)의 원자력 품질 "N","NPT","NS"인증서
2021.06	수소액화플랜트 제작 및 설치(한국기계연구원)
2024.04	한국전력기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추진 MOU 체결
2024.11	ISO 19443 취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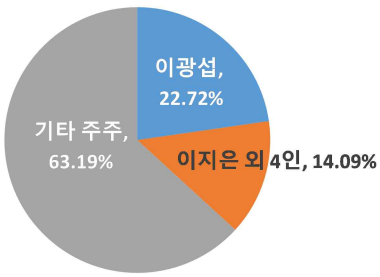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광섭으로, 전체 발행주식(15,078,709주) 중 3,425,584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22.7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지은 외 4인의 특수관계자가 2,124,321주(14.09%)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36.81%이다. 한편, 동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43,611주를 2026년 1월 전량 매도하여 자기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나머지 9,528,804주(63.19%)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동사는 창업·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정비, 원자력, 플랜트, 연료전지 등 중장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된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표이사 중심 지분 구조는 경영권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인 동시에, 이사회 독립성, 소수주주 권익 보호, 자본 배분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점검 요구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자기주식 처분 이후의 유통주식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주주환원 정책, 투자 재원 활용,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투명성이 지배구조 평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이광섭	3,425,584	22.72%	최대주주
이지은 외 4인	2,124,321	14.09%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9,528,804	63.19%	
합계	15,078,709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사업 영역은 발전설비 정비, 원자력·전기공사, 재생에너지 및 연료전지 발전, 화공·플랜트 기자재 제작·시공으로 구성된다. 발전사업은 국내 화력 및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설비개선 및 성능개선 공사 등을 수행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발전설비의 안정 운전 필요성이 지속되는 한 반복 수요가 형성된다. 경상정비는 발전소의 정상 운전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터빈, 보일러, 탈황설비, 전기·제어설비, 급수·폐수처리 설비 등 주요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하는 상시 서비스이다. 계획예방정비는 발전소가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에 주요 설비를 분해·점검·조립·시험하는 공사이다.

원자력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기자재 제작, 수력발전 정비, 시운전 및 관련 공사 등을 수행한다. 이 부문은 기존 발전정비 역량을 원자력·수력 등 고신뢰 설비 영역으로 확장하며, 원자력 관련 품질·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술 인증, 품질관리, 안전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신성장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검토한다. 현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나, 기존 화력·복합발전 정비 중심 사업구조에서 친환경·분산형 에너지 영역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기능을 담당한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독립 수익원이라기보다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전력자원 개발 등 신규 사업과 발전설비 기술 역량을 연결하는 사업 개발 기능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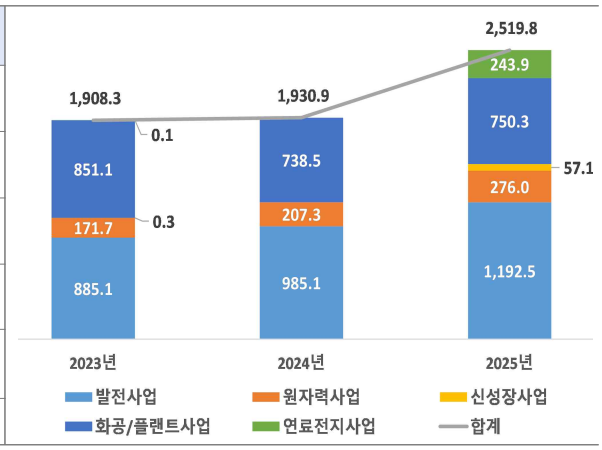
화공사업은 고객사 공정 조건과 프로젝트 사양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타워 등 정유·석유화학 및 플랜트 핵심설비 기자재를 제작한다. 이 사업은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 플랜트 발주 환경, 원재료 가격, 납기 및 품질관리 능력에 영향을 받는 제작형 사업이며, 대형 장치 제작 설비와 설계·강도계산·검사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플랜트사업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발전 및 제련 플랜트의 배관, 철골, 회전기계, 산업기계 등 제작·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

연료전지사업은 연료전지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발전자산을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운영형 사업이다. 매출은 연료전지 발전소의 전력 생산 및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하며, 수소발전 입찰제도, 연료 조달비용, 발전 효율, 전력 판매 조건, 프로젝트 금융 구조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각 사업은 발전설비 정비 중심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반복 정비 수요 기반으로 캐시카우로 기능하고, 원자력사업은 고신뢰 발전설비 정비와 기자재 제작으로 기술 범위를 확장한다. 화공·플랜트 사업은 대형 설비 제작 및 현장 시공 역량을 제공해 발전·수소·플랜트 관련 프로젝트 수행 기반을 보완하며, 연료전지사업은 기존 정비·제작 역량을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으로 연결하는 성장축 역할을 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발전사업	885.1	46.4%	985.1	51.0%	1,192.5	47.3%
원자력사업	171.7	9.0%	207.3	10.7%	276.0	10.9%
신성장사업	0.3	0.0%	-	0.0%	57.1	2.3%
화공/플랜트 사업	851.1	44.6%	738.5	38.3%	750.3	29.8%
연료전지사업	0.1	0.0%	-	0.0%	243.9	9.7%
매출 합계	1,908.3	100.0%	1,930.9	100.0%	2,519.8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판매 방식은 발전회사, 공공·민간 발전소,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자, 원자력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 기반 수주형 영업에 해당한다. 발전설비 정비사업은 고객 설비에 전문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경상정비를 수행하고, 설비 정지 기간에 계획예방정비 및 개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고객 확보는 가격 경쟁뿐 아니라 정비 이력, 안전관리, 기술인력 운용능력, 발주처 요구 수준 충족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화공·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전량 주문 수주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제품별 규격이 상이해 일률적인 판매가격 산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동사의 경쟁전략은 표준 제품 판매보다 고객 프로젝트별 설계 대응, 품질관리, 납기 준수, 원가관리, 인증 기반 제작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사는 기존 발전정비 고객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자력, 수력발전 현대화, 소방시설 정비, 연료전지 발전 등 인접 사업에서 추가 수주 기회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에너지 사업은 정책, 입찰제도, 프로젝트 금융, 연료 조달 및 운영 효율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존 발전정비와 화공·플랜트 기자재 사업의 안정적 수주 관리가 사업모델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전력수급 안정성 기반의 반복 정비 수요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부가 정비 기회 공존

목표시장은 화력·복합·원자력·수력 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돌발 고장정비, 개보수 및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하는 설비 유지관리 시장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설비 가동률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이며, 발전소 운전 기간, 정기 검사 주기, 노후 설비 수명연장, 피크 전력수요 대응에 따라 반복 수요가 발생한다. 시장은 한전KPS 등 대형 전문기업 중심의 장기 정비계약과 민간 정비업체의 경쟁입찰이 병존하는 구조이며, 기술 이해도, 현장 정비 인력, 안전·품질관리, 발주처 수행 이력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발전설비 정비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발전설비 정비 시장으로, 화력 · 복합 · 원자력 · 수력 등 발전소의 터빈, 보일러, 발전기, 전기 · 제어설비, 환경설비, 급수 · 폐수처리 설비 등을 대상으로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돌발 고장정비, 개보수 및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하는 설비 유지관리 시장이다. 정비 업무는 경제적 가치 유지, 기기 수명 연장, 설비가동률 제고, 고장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지원하는 발전소 운영의 필수 기능으로 인식된다.

전방 산업은 한국전력공사 계열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민간발전사, 열병합발전 사업자, 산업단지 자가발전 및 플랜트 운영사 등으로 구성된다. 발전설비 정비 수요는 신규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발전소의 운전 기간, 정기 검사 주기, 노후 설비의 수명연장, 환경설비 보강, 발전 효율 개선, 피크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설비 신뢰성 확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계획예방정비와 개보수 공사는 하절기 ·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기를 피해서 일정이 수립되어, 시장 수요는 연중 일정하지 않고 분기별 · 계절별 변동성을 가진다.

경쟁 구조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한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 중심의 장기 정비계약과 경쟁입찰이 병존하는 형태이다. 목표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특정 대형 전문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화력 부문에서는 정부의 민간정비업체 육성 및 경쟁 도입 정책 이후 민간 정비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왔고, 태안 · 하동 · 당진 · 영흥 등 발전소에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의 정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입장벽은 발전설비별 기술 이해도, 현장 상주 정비 인력, 고장 진단 및 복구 경험, 안전 · 품질관리 체계, 발주처 평가 이력, 원자력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 대응 능력에서 형성된다. 특히 원자력 정비는 일반 화력 정비보다 안전성, 품질보증, 규제 대응 수준이 높아 발전설비 정비 기술력, 원자력 및 발전설비 전문 인력, 안전 · 품질관리 능력, 발전사업자와의 장기 협력 관계 등 관련 수행 경험과 인증 기반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가격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인건비, 전문인력 확보 비용, 안전관리 비용, 발주처 예산, 계약 방식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발전설비 정비는 제품 판매보다 인력과 기술 수행 역량에 기반한 용역 · 공사형 매출 구조이므로, 원재료 가격보다 인력 운영 효율성, 정비 일정 준수, 돌발 고장 대응력, 공사 범위 변경 관리가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가스터빈 고온부품 재생정비, 핵심 부품 제작, 성능개선 공사 등 고부가 정비 영역에서는 기술 내재화와 제작사 협력 여부가 경쟁력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은 전력 수요 및 공급 구조와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량은 2023년 546.0TWh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0.9%로 증가하여 2038년 목표수요 기준 624.5TWh로 전망된다. 국내 전력수급의 경우 하계 최종설비 기준 2024년 121.7GW에서 연평균 1.9%로 증가하여 2038년에는 157.8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핵심 성장 요인은 전력수요 증가, 발전설비 노후화, 전원 믹스 변화, 원자력 및 신재생 설비 확대, 설비 안정성에 대한 요구 강화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주요 변수로 반영되고 있고, 전원 구성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탄발전 축소, 무탄소 전원 확대가 주요 방향이다. 2038년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은 35% 내외, 재생에너지 비중은 29% 내외로 확대되는 방향이 제시되고, 노후 석탄발전 일부는 수소 전소 발전, 양수발전,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석탄화력 정비 시장이 축소되는 반면, 원자력 · 양수 · 복합발전 · 신재생 O&M 정비 수요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화력 및 복합발전 정비 시장은 구조적 변화와 단기 안정성이 공존한다. 석탄발전은 탄소중립 정책과 노후 설비 폐지 · 전환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정비 대상 설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전력 피크 대응과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 LNG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기존 화력설비의 유지관리 수요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스터빈 고온부품 재생정비, 터빈 · 발전기 성능개선, 노후 설비 수명진단 및 효율 개선 공사는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발전소 경제성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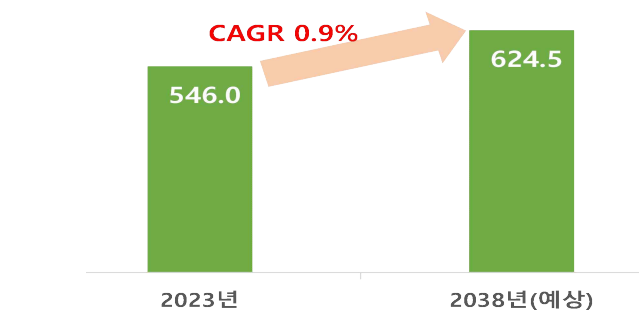
기술 변화 면에서 예방정비에서 예측정비로 전환이 중요하다. 발전설비 정비는 과거 정기점검과 고장 복구 중심에서 진동, 소음, 온도, 압력, 윤활유 상태, 전류, 열화상 등 설비 데이터를 활용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정비 시점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정책 및 산업 환경 측면에서 안전 규제와 품질관리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발전정비 및 원자력 관련 사업은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정비 품질 저하는 설비 사고와 전력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발주처의 안전 · 품질 평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정비 기업은 정비 데이터, 진단 기술, 안전관리 체계, 품질보증 체계를 갖춘 기술 서비스 기업으로의 역량 전환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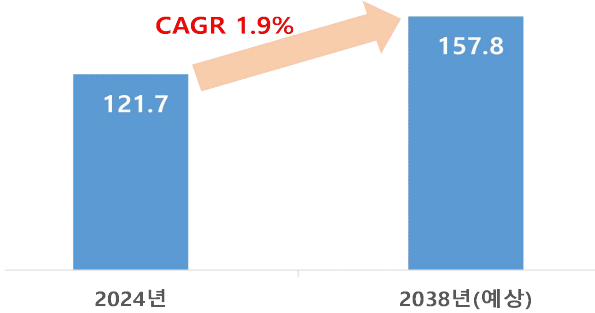
태양광 · 풍력 · 바이오매스 · 수소 · ESS(Energy Storage System) 등 분산형 전원이 확대될수록 기존 대형 화력발전소 중심의 정비 수요는 축소될 수 있으나,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산의 O&M, 출력제어 대응, 계통 연계 설비 관리, 해상풍력 및 연료전지 장기 유지보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시장의 변화는 동사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한다. 발전설비의 안정 운전 필요성, 노후 설비의 성능 개선 · 수명연장 수요, 원자력 · 수력 · 민간발전 · 열병합발전 정비 확대, 연료전지 · 재생에너지 관련 O&M 수요 증가는 사업 확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석탄화력 비중 축소에 따른 기존 정비 물량 감소 가능성, 대형 사업자의 시장 지위, 경쟁 심화, 전문인력 확보 부담, 안전 · 품질관리 리스크는 부담 요인이다.

[그림 1] 국내 전력소비량 전망 (단위 : TWh)



[그림 2] 국내 전력수급 전망 (하계 최종설비 기준, 단위 : GW)



자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발전설비 정비와 플랜트 제작 기술 기반의 현장형 종합 에너지 설비 기술 보유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 원자력 설비 대응, 화공·플랜트 기자재 제작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화력·복합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밸브, 급수펌프 등에 대한 정비 및 개보수 공사를 수행하며, 발전소 운영 경험을 통해 정비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원자력 분야에서 파일럿 설비 설계·제작 및 설비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신뢰 설비 대응 역량을 확보하였고, 플랜트 부문에서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등 대형·고압 장치류 제작과 특수소재·특수 열교환기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터빈·보일러 정비 효율 개선, 화력발전 부대설비 개선, 압력용기·용접·검사 공정 고도화 등 현장 적용형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고, 발전설비 정비, 터빈·보일러 구조, 플랜트 제작공정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 기술, 원자력 설비 대응 기술, 화공 · 플랜트 기자재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화력 및 복합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고압 · 고온 밸브, 급수펌프, 탈황설비 등을 대상으로 운전지원,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개보수 공사를 수행하고, 주요 발전소에 인력을 배치해 현장 기반 유지보수 체계를 운영 중이다.

동사의 발전설비 정비 기술은 단순 부품 교체보다 설비 진단, 정비 이력관리, 분해 · 조립, 시운전, 성능개선이 결합된 종합 정비 역량에 가깝다. 특히 보일러 및 터빈 계통, 탈황설비, 석탄 이송 · 분쇄 설비, 고온 · 고압 밸브와 펌프 등 발전소 핵심 설비를 정비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화력 · 복합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방정비와 돌발정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하동, 삼척, 일산, 당진, 신보령, 울산, 포천, 한빛 등 다수 사업소 운영 경험은 고객 설비별 운전 조건과 정비 특성에 대한 현장 노하우 축적 기반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설비 정비, 기계 · 전기 설비 공사, 연구용 파일럿 설비 제작 및 운전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원자력 설비의 공정, 유틸리티, 수처리, 공기 · 가스 공급, 스팀 패키지 등 파일럿 시스템의 설계 · 제작 · 개조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 특성상 요구되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제작 · 검사 기준 대응 역량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일반 발전설비 정비와 달리 높은 신뢰성과 규제 대응이 요구되는 원자력 · 수력 설비 정비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화공 · 플랜트 기자재 부문에서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컬럼 · 타워, 저장탱크, 보일러 및 터빈 부속기기, 고압 · 저압 히터 등 장치류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정유, 석유화학, 비료, 가스, 발전 및 산업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고객 사양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설비로, 상세설계, 강도계산, 열해석, 용접, 비파괴검사, 수압시험, 도장 · 블라스팅, 납기 관리가 핵심 경쟁요소이다. 동사는 대형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제작이 가능한 울산 공장 및 가공설비를 기반으로 고중량 · 대형 장치 제작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로드 배플 열교환기, 헬리컬 배플 열교환기, 내부 보어 용접, 고압 · 후육 장치, 클래드 소재, HIC(Hydrogen Induced Cracking) 대응 소재, 하이플럭스 튜브, 티타늄 · 듀플렉스 · 하스텔로이 등 특수소재 적용 경험이 확인된다. 이는 범용 장치 제작보다 공정 조건이 까다로운 정유 · 석유화학 · 비료 · 가스 프로젝트에서 품질과 기술 대응력이 필요한 영역이며, 동사의 플랜트 사업이 단순 제작 외주가 아니라 프로젝트별 엔지니어링 대응 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보여준다.

[그림 3] 동사의 로드 배플 열교환기

자료: 동사 브로슈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활동은 발전설비 정비 품질 고도화와 플랜트 장치 제작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은 기술연구소와 사업부별 엔지니어링 기능을 기반으로 설비 설계, 제작도면 작성, 구조·강도계산, 열해석, 배관 3D 설계, 배관응력 해석, 피로해석, 품질검사 기술을 실제 정비·제작 프로젝트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독립 제품 개발보다는 발전소 및 플랜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비 효율, 설비 신뢰성, 제작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성격이 강하다.

발전설비 부문에서 터빈 씰 구조, 터빈 케이싱 정렬, 로터 변위 측정, 터빈 블레이드 비파괴검사, 보일러 튜브 구조, 판넬 튜브 절단장치 등 핵심 설비의 점검·진단·정비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 성과가 확인된다. 이는 동사가 현장 정비 과정에서 축적한 운전·고장·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 작업성, 설비 안정성, 예방정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력발전 부대설비와 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석탄운송 컨베이어용 슈트, 석탄 분쇄용 미분장치, 미분기 파이라이트 호퍼 배기장치, 습식 탈황 장치 등 연료 이송, 분쇄, 배기, 탈황 공정의 운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화력발전소의 유지보수, 노후 설비 개선, 환경·안전 대응 수요와 연계될 수 있다.

플랜트 기자재 제작 부문에서는 압력용기용 경판 및 티타늄 경판 제작, 퍼징 용접, 파이프 절단, 온도센서 부착, 고온·고압 밸브, 펌프 테스트 장치 등 제작공정과 검사·시험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컬럼 등 고압·고온 장치 제작에서 용접 신뢰성, 치수 정밀도, 검사 효율성,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기반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설비의 온도, 압력, 진동 등 상태 데이터를 활용한 소음·진동 저감 기술도 확인되어, 동사의 연구개발 방향은 전통적 정비기술에서 데이터 기반 설비 상태관리와 고부가 정비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발전소 핵심 회전체 정비, 석탄화력 부대설비, 환경설비, 고압·고온 배관 및 용기 제작, 수소 분리, 검사·시험 장치 등에 대한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발전설비 관련 주요 특허는 터빈 블레이드 비파괴 검사 장치, 터빈 로터 변위 측정 기능이 포함된 저널 베어링, 능동형 이중 편심씰을 갖는 터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기술은 터빈 계통의 정렬, 누설 방지, 회전체 상태 확인, 블레이드 검사 등 발전소 정비의 핵심 작업과 연계된다. 보일러 및 화력발전 부대설비 관련 특허로 화력발전 보일러 튜브 구조, 판넬 튜브 멤브레인 커팅장치, 석탄 분쇄용 미분장치, 습식 탈황 장치 등이 있으며, 이는 운전 안정성, 정비 작업성, 환경설비 대응과 관련된다. 플랜트 제작 및 수소 관련 특허는 압력용기용 경판 제작방법, 티타늄 경판 제작방법, 퍼징 용접방법, 파이프 절단장치, 고온·고압 밸브, 펌프 테스트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특허는 화공·플랜트 기자재의 제작 품질, 특수소재 가공, 용접 신뢰성, 시험·검사 및 수소 분리 공정과 연결되며, 동사의 장치 제작사업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인증 및 면허 측면에서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와 플랜트 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품질·환경·안전·용접·원자력 관련 인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ISO 9001, ISO 14001, ISO 3834, ISO 45001 등 품질·환경·용접·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 U2, S, R, NB 및 원자력 관련 N, NPT, N3, NS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계열 인증과 Helixchanger 라이선스, 고압가스 특정설비 관련 면허 등을 통해 압력용기, 원자력 기자재, 특수 열교환기 제작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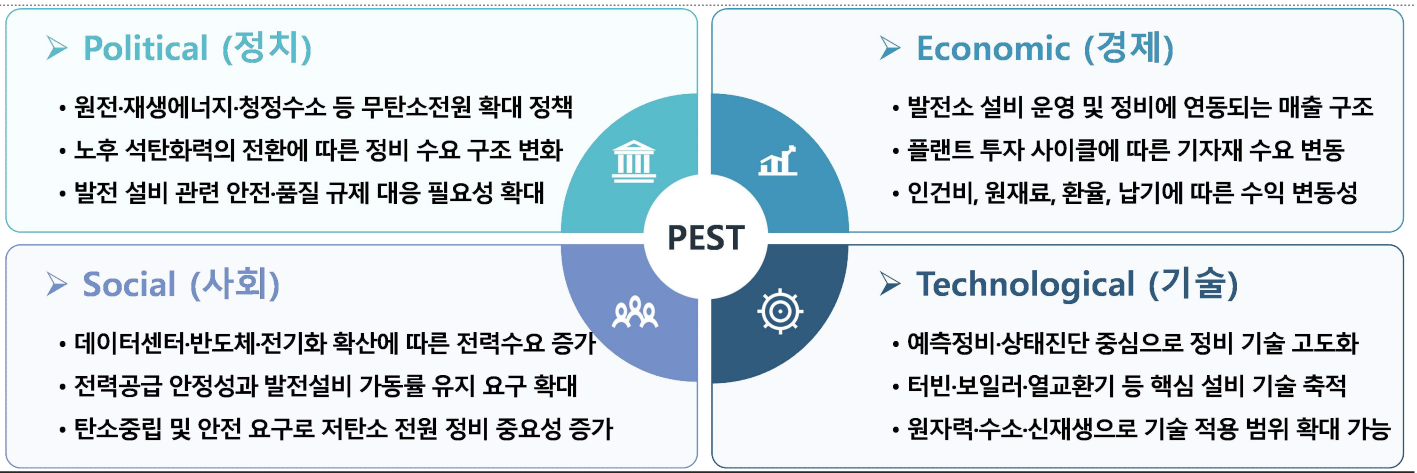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 원자력, 수소·연료전지, 플랜트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정책, 탄소중립 정책, 수소경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재생에너지·청정수소 등 무탄소전원 확대와 노후 석탄화력의 단계적 전환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동사의 기존 화력발전 정비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원자력, 수력, 연료전지 및 신재생 O&M 영역에서는 신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자력 및 발전설비 정비 사업은 안전·품질 규제와 발주처 평가 기준이 엄격하므로, 인증 유지와 규제 대응 역량이 지속적인 수주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사의 매출은 발전회사 정비 발주, 민간발전 및 열병합발전 설비 운영,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투자, 원자재 및 인건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발전설비 정비는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연결되어 반복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계획예방정비 일정, 발주처 예산, 입찰 경쟁, 전문인력 확보 비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 화공·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글로벌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와 정유·석유화학 업황에 민감하며, 대형 장치 제작 특성상 원재료 가격, 환율, 납기, 프로젝트 원가 관리가 실적 변동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력 사용 증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전기차 보급 및 산업공정 전기화는 국내 전력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의 안정 운전, 가동률 유지, 정기 정비, 노후 설비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발전설비 정비 시장의 기반 수요를 지지한다. 동시에 탄소중립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석탄화력 의존도는 낮아지고, 원전·신재생·수소·연료전지 등 저탄소 전원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비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설비 정비 시장은 단순 부품 교체 중심에서 설비 진단, 정비 이력관리, 예측정비, 성능개선, 데이터 기반 상태관리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동사는 보일러, 터빈, 고압·고온 밸브, 급수펌프, 탈황설비 등 발전소 핵심 설비 정비 경험과 함께 터빈·보일러 구조, 비파괴검사, 소음·진동 저감, 플랜트 제작공정 관련 특허 및 인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SME, KEPIC, ISO 등 인증과 대형 열교환기·압력용기 제작설비를 확보하고 있어 원자력·플랜트·수소에너지 설비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향후 경쟁력은 예측정비, 고부가 성능개선, 신재생·연료전지 O&M 분야에서 실제 수주와 현장 적용 성과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안정적 정비사업과 신사업 매출이 견인한 재무구조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1,908.3억 원, 2024년 1,930.9억 원, 2025년 2,519.8억 원으로 2025년에 외형 확대 폭이 커졌다. 2025년에는 발전사업부문의 안정적 매출 확대와 연료전지사업부문의 신규 기여가 더해지면서 매출 성장 폭이 확대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4년 영업이익률이 5.3%로 하락했으나, 2025년에는 9.6%로 회복되며 원가율 개선과 판관비 부담 완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순이익도 2025년 195.5억 원으로 증가하여 종속·관계회사 성과 개선이 순손익에 반영되었다. 재무구조는 자산과 자본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투자 확대에 따라 차입금이 확대되었다.

■ 주력 사업 안정성에 연료전지 매출 결합되며 외형 확대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1,908.3억 원, 2024년 1,930.9억 원, 2025년 2,519.8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치며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0.5%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이 확대되었다. 발전사업부문과 원자력사업부문의 매출 증가와 함께 2025년 연료전지사업부문 매출이 본격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발전사업부문] 매출은 2023년 885.1억 원, 2024년 985.1억 원, 2025년 1,192.6억 원으로 나타나 2025년에는 주요 발전소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물량이 확대되며 매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원자력사업부문]은 2023년 171.7억 원, 2024년 207.3억 원, 2025년 276.0억 원으로 증가하여 원전 정비, 전기공사, 원자력 기자재 관련 사업의 기여도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성장사업부문]은 2025년 57.1억 원이 반영되었다. 종속회사 부문에서는 [화공 및 플랜트 사업부문]가 2023년 851.1억 원, 2024년 738.5억 원, 2025년 750.3억 원으로 열교환기·압력용기 등 석유화학 및 플랜트 핵심설비 제작 부문에서 매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제작·시공 및 유지보수 공사 매출 역시 확대된 흐름을 보였다. [연료전지사업부문]의 경우 2025년 243.9억 원이 반영되며 진천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상업운전 개시와 고양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등 신사업 기반 확대가 나타났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637.8억 원으로, 전년 1분기 410.5억 원 대비 55.4% 증가하였다. 향후 매출액은 수주와 진행률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나, 기존 발전정비·화공플랜트 기반 매출에 연료전지 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며 외형 성장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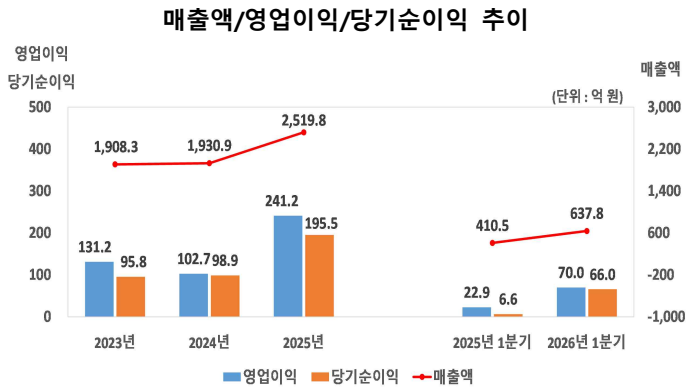
■ 매출 확대와 원가율 개선이 동반되며 영업이익률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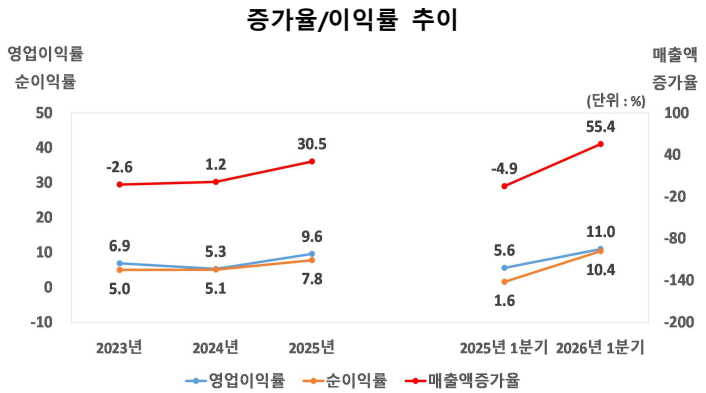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131.2억 원, 2024년 102.7억 원, 2025년 241.2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6.9%, 2024년 5.3%, 2025년 9.6%로, 2024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 2025년에 개선세를 보였다. 매출원가율의 경우 2023년 86.9%, 2024년 87.2%, 2025년 85.1%로 2025년에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2025년에는 매출 확대와 함께 매출원가율이 낮아지고, 판관비율도 5.3%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영업이익률 회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관비는 2023년 119.4억 원, 2024년 145.2억 원, 2025년 134.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매출 규모 확대에도 판관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3개년 당기순이익은 2023년 95.8억 원, 2024년 98.9억 원, 2025년 195.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2023년 5.0%, 2024년 5.1%, 2025년 7.8%로 개선되었다. 2025년 일진에너지, 진천그린에너지 등 종속회사의 성과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이 순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7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출 확대와 원가율 개선이 동시에 나타난 만큼, 주요 프로젝트의 원가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신사업 투자 확대와 부채 증가가 병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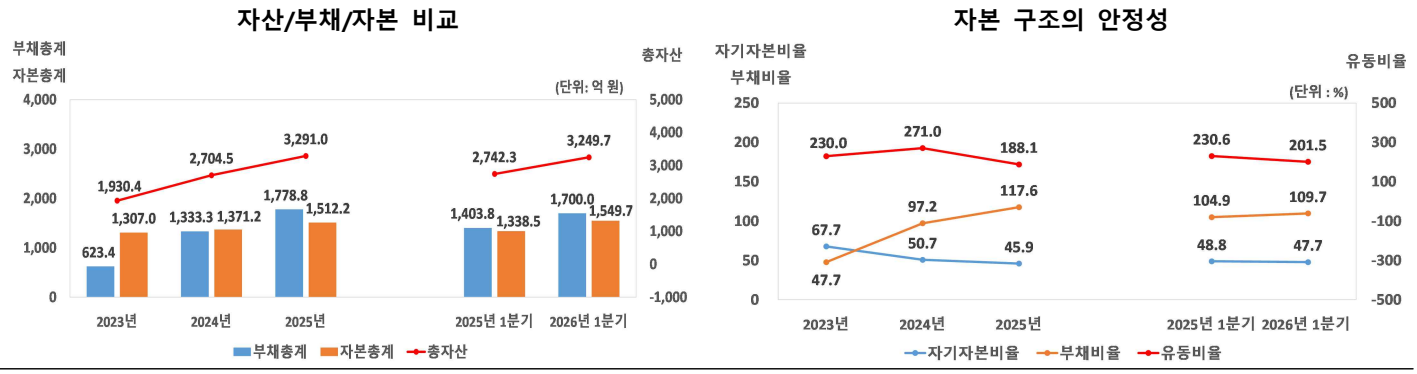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1,930.4억 원, 2024년 2,704.5억 원, 2025년 3,291.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유동비율은 2023년 230.0%, 2024년 271.0%, 2025년 188.1%로 나타났으며, 유동자산은 2024년 900.2억 원에서 2025년 1,265.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기말현금도 2024년 259.3억 원에서 2025년 717.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비유동자산은 2024년 1,804.3억 원에서 2025년 2,02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형자산과 투자 관련 자산 확대가 나타나고, 연료전지 등 신규 사업 기반 구축과 연결범위 확대 역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총계는 2023년 623.4억 원, 2024년 1,333.3억 원, 2025년 1,778.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47.7%, 2024년 97.2%, 2025년 117.6%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이후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투자를 위한 장기차입금 증가가 부채구조 변화의 핵심 요인이었다. 2025년 말 장기차입금은 779.0억 원,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5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본총계는 2023년 1,307.0억 원, 2024년 1,371.2억 원, 2025년 1,512.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익잉여금은 2025년 1,265.7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순이익 누적을 통해 자본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자산 증가에 비해 부채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67.7%, 2024년 50.7%, 2025년 45.9%로 하락하였으나, 신사업 투자와 연결 자산 확대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불가피하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1분기 유동비율은 201.5%, 부채비율은 109.7%, 자기자본비율은 47.7%로 나타났다. 차입 확대 이후에도 유동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현금흐름 회복과 투자 부담 관리가 병행될 경우 재무안정성은 점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1,908.3	1,930.9	2,519.8	410.5	637.8
매출액증가율(%)	-2.6	1.2	30.5	-4.9	55.4
영업이익	131.2	102.7	241.2	22.9	70.0
영업이익률(%)	6.9	5.3	9.6	5.6	11.0
순이익	95.8	98.9	195.5	66	66.0
순이익률(%)	5.0	5.1	7.8	1.6	10.4
부채총계	623.4	1,333.3	1,778.8	1,403.8	1,700.0
자본총계	1,307.0	1,371.2	1,512.2	1,338.5	1,549.7
총자산	1,930.4	2,704.5	3,291.0	2,742.3	3,249.7
유동비율(%)	230.0	271.0	188.1	230.6	201.5
부채비율(%)	47.7	97.2	117.6	104.9	109.7
자기자본비율(%)	67.7	50.7	45.9	48.8	47.7
영업현금흐름	103.1	25.0	370.0	60.7	-72.3
투자현금흐름	-186.7	-922.0	40.0	125.0	-50.8
재무현금흐름	-55.7	719.6	47.6	-2.2	21.5
기말현금	401.1	259.3	717.1	443.0	618.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연료전지사업의 신규 매출 확대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업은 2023년 885.1억 원에서 2025년 1,192.6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에도 1,200.0억 원 수준이 예상되어 동사의 핵심 매출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기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문은 화력·복합발전소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개보수 공사 등 반복 수요에 기반하고 있어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와 발전설비 가동률 유지 필요성이 실적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자력사업은 2023년 171.7억 원에서 2025년 276.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30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원전 비중 확대, 계속운전 검토, 원자력 설비의 안전성 및 정비 품질 요구 강화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문은 동사의 중장기 성장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자력 분야는 수행 경험, 인증, 품질보증, 규제 대응 수준이 중요하므로 실제 실적 확대는 관련 수주 지속성과 프로젝트 수행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성장사업은 2025년 매출 57.1억 원에서 2026년 6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관련 설비 대응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실적 기여도가 크지 않지만, 발전정비 및 플랜트 제작 역량을 수소·신재생 설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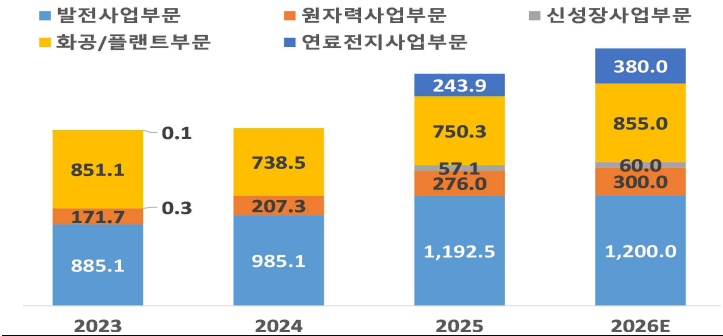
화공/플랜트 부문 매출은 2025년 750.3억 원에서 2026년 855.0억 원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주문 제작형 기자재와 플랜트 시공·보수 수요에 기반하므로 정유·석유화학 및 산업플랜트 투자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 2026년 전망은 대형 장치 제작 수요와 플랜트 프로젝트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납기 관리, 원재료 가격, 환율, 프로젝트 원가 통제가 수익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료전지사업은 2025년 243.9억 원의 매출이 반영된 이후 2026년 380.0억 원으로 확대가 예상되어 향후 실적 성장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및 전력 판매 구조가 안착될 경우 기존 정비·제작 중심 사업에서 운영형 에너지 사업으로 수익원을 넓힐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연료비, 전력 판매 조건, 정책 지원, 발전소 가동률, 프로젝트 금융 구조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어 매출 확대와 함께 운영 안정성 확보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동사는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자력사업과 연료전지사업이 성장성을 보완하고, 화공/플랜트 부문이 회복세를 더하는 구조로 전망된다. 2026년에는 발전사업의 안정적 매출 유지, 원자력사업의 점진적 확대, 연료전지사업의 본격 성장, 화공/플랜트 부문의 회복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석탄화력 정비 수요의 중장기 조정 가능성, 플랜트 발주 변동성, 연료전지사업의 운영 리스크, 입찰 경쟁 및 원가 부담은 향후 실적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E
발전사업부문	885.1	985.1	1,192.5	1,200.0
원자력사업부문	171.7	207.3	276.0	300.0
신성장사업부문	0.3	-	57.1	60.0
화공/플랜트부문	851.1	738.5	750.3	855.0
연료전지사업부문	0.1	-	243.9	380.0
합계	1,908.3	1,930.9	2,519.8	2,795.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발전정비 기반 위에 원자력·연료전지·신재생 O&M으로 성장축 확장 중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와 화공·플랜트 기자재 중심의 사업 기반을 유지하며 연료전지, 신성장사업, 신재생 O&M 및 발전자산 운영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해외법인 청산으로 연결범위가 조정되었고, 현금배당을 통한 주주환원도 실행되었다. 또한 발전사업, 열병합, 집단에너지, 신재생 발전설비 운영·유지관리, REC 거래, 발전소 EPC·O&M, 에너지 투자사업 등이 사업목적에 추가되면서 에너지 설비 서비스와 운영형 사업으로의 확장 기반이 마련되었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기존 발전설비 정비, 원자력, 화공·플랜트 기자재 중심 사업구조에 연료전지와 신성장사업이 더해지며 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발전사업은 화력·복합발전소의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공사와 발전소 개보수 등 인접 영역으로 수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원자력사업은 원전 정비와 기자재 제작뿐 아니라 수력발전 정비, SMR 관련 설비 제작, 삼중수소 저장용기 제작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어, 기존 발전정비 역량을 고신뢰 설비 및 에너지 전환 분야로 연결하는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종속회사 및 신규 사업 측면에서 해외 원전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했던 UAE 현지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치며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외 현장정비 확대보다는 국내 발전정비, 원자력, 플랜트 기자재 및 에너지 설비 사업 중심으로 사업 초점이 재정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천그린에너지와 고양그린에너지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사는 단순 정비·제작형 사업자에서 발전자산 운영형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전사업,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유지관리, REC 거래, 발전소 EPC 및 O&M, 에너지 기술개발·컨설팅, 발전사업 관련 투자·SPC 운영 등이 사업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는 동사가 기존 발전정비 및 플랜트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소 운영, 신재생 O&M, 에너지 투자 및 개발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는 2025년 보통주 대상 현금 결산배당을 실시했으며, 일반투자자 기준 1주당 배당금은 360원, 시가배당률은 2.8%, 배당금 총액은 약 51.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는 1주당 330원, 일반투자자에게는 1주당 36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해 일반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안정적인 주주환원 기조와 함께 일반주주 친화적 자본정책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전망

동사는 발전설비 정비사업의 안정성, 원자력사업의 확장성,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운영 성과, 화공·플랜트 기자재 수주 회복 여부에 따라 향후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전력수요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전기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증가 요인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발전설비의 안정 운전, 계획예방정비, 노후설비 성능개선 및 개보수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다수 발전소 현장 정비 경험과 터빈·보일러·밸브·펌프·환경설비 등 핵심 설비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기존 발전정비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진파워(094820)

전원 구성 변화는 동사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할 전망이다. 석탄화력 비중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존 화력 정비 물량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원전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및 SMR, 수력 설비 정비, LNG 복합발전, 발전소 성능개선 수요는 새로운 정비 · 제작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사는 원자력 품질 인증과 원전 관련 설비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정비 및 기자재 분야에서 사업 확대 여지가 있으며, 향후 성과는 관련 수주 지속성과 품질 · 안전 기준 충족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료전지 및 신성장사업은 동사의 사업구조를 정비 · 제작 중심에서 발전소 운영 및 에너지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변수이다. 정관상 발전사업, 열병합, 집단에너지, 신재생 발전설비 운영 · 유지관리, REC 거래, 발전소 EPC · O&M, 에너지 컨설팅 및 투자사업이 추가된 만큼, 동사는 향후 발전자산 개발 · 운영과 신재생 · 연료전지 O&M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다만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연료 조달 조건, 전력 판매 구조, 설비 가동률, 정책 지원, 프로젝트 금융 구조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어 외형 확대와 함께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화공 · 플랜트 부문은 정유 · 석유화학 · 가스 · 산업플랜트 투자 사이클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동사가 보유한 대형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컬럼 등 장치 제작 경험과 특수소재 · 고압 · 후육 장치 대응력은 수주 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플랜트 발주 회복, 수소 · 가스 인프라 투자, 고효율 열교환 설비 수요가 확대될 경우 해당 역량은 신성장사업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발전정비를 안정적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원자력, 연료전지, 신재생 O&M, 수소 · 플랜트 기자재 영역으로 성장축을 다변화하는 국면에 있으며, 향후 관건은 신규 사업목적 확대가 실제 수주와 운영 성과로 이어지는지로 판단된다.

일진파워(09482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7.0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일진파워	X	X	X